

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자 료</h1> <p>배 포 일 시 : 2017년 9월 8일(금)</p> </div>			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!
제 공 부 서	세 종 시 의 회	공보담당	염 기 택	☎ 300-7241
		주 무 관	이 종 곤	☎ 300-7242

“돌봄” 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필요

- 세종특별자치시의회(의장 고준일)는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.
- 박영송 의원은 “학생들이 세종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호받고 배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 구현을 위해 시청, 교육청, 지역사회 간 교육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” 고 주장했다.
-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,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협력체제를 전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, 0~24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여성·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봄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.
- 특히, 세종시의 경우 학교, 복합커뮤니티센터, 아파트 단지 내 유희시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춘 만큼 이 공간이 학생들의 휴식과 배움을 위한 터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정책적·행정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덧붙여 서울시의 ‘서울형 혁신교육지구’, 경기도 시흥시의 ‘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’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, 교육협력체제 구축은 교육거버넌스 체제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.

□ 마지막으로 박영송 의원은 유권자로서 권리가 없고 아직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시민임을 재차 강조하면서,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, 시청, 교육청, 지역사회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.

붙임 박영송 의원 5분 자유발언 장면 사진 1부.(별첨) 끝.